

부활절 다섯 번째 / 어린이 주일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5TH SUNDAY OF EASTER

주후 2021년 5월 2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442 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새 569)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71 번 어린이주일(Children’s Sunday)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 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문일호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Leading	빌립보서(Philippians) 4:11-20	김 현 집사
설 교 Sermon	“다시 만나는 교회(25) – 부족함으로” (Gathering Together Again – In Need)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특송: 윤희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524 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새 222)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더 높아지려고 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 받고 칭찬 듣는 것에 더 많이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부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 힘이 무너지며, 여전히 세상의 욕망을 좇아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정 소원하오니, 이제부터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좇아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 183-4)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한글개역 **빌4:19**)
 “And my God will meet all your needs according to His glorious riches in Christ Jesus.” (NIV **Philippians 4:19**)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5/2 (주일)	5/3 (월)	5/4 (화)	5/5 (수)	5/6 (목)	5/7 (금)	5/8 (토)
	민9	민10	민11	민12,13	민14	민15	민16
본문	시45 야7 히7	시46,47 야8 히8	시48 사1 히9	시49 사2 히10	시50 사3,4 히11	시51 사5 히12	시52-54 사6 히13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5/5수 오후7:30)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고후 3:1-11)
토요 새벽기도회 (5/8토 오전6:30)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나” (시 36:1-12)

지난 주일(4/25) 말씀

“다시 만나는 교회 (24) – 공의를 행함으로” (미 6:6-8)

(오늘) 본문인 미가 6장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공의)가 무엇인지? 를 밝혀주고 있는데,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가 계속 강조했던 내용은 “어떻게 하면, 다시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제사(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였고, 이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 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제사와 성전과 성회로 모이는 절기 조차도, 다 그 의미가 상실되었고, 그 중심이 다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를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1)첫째는 오직 공의를 행하라 (Act/Do Justice)는 것이고, 2)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라 (Love Mercy)는 것이며, (마지막) 3)셋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Walk Humbly with God)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또한 이것이 (바로) 공의를 행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움이나 증오를 통해서만은 우리 역시 불의한 자들을 똑같이 닮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며, 불의를 대항하고, 미움과 증오를 이기는 힘은 (또 다른) 미움이나 (또 다른) 증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움을 이기는 사랑으로, 혼돈과 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된 세상 속에서도, ‘보복하는 정의가 아니라, 회복하는 정의를 구현하며, (참된)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세상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